

< 2022년 교회표어 >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신16:11, 막1:15, 행2:47)

스며드는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라!

- 사도신경
- 찬 송 325장
- 기 도
- 성경본문 [디모데전서 4:7~8]

7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 삶 나누기

귀농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텃밭을 분양받고 가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텃밭을 가꿔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서론: 농사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내적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근교에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과수원 농사에서 크게 성공해서 좀 잘살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농사는 열심히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포도원에 가서 과수원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보는데, 이 사람은 거의 포도원에는 나가 보지를 않고 그저 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포도원에 가 보았더니 포도나무 밑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잡풀들이 뒤덮여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온갖 진드기와 벌레가 과수원 전체에 퍼져 나무 잎과 가지를 갉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포도원에 가을이 되었을 때 큰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내적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 곧 죄 사함은 믿음으로 공짜로 얻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공짜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자기 영혼의 내적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상태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입니다!

열망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한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람되고 멋진 인생'과 더불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망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악한 욕구들'입니다. 탐식, 음욕, 탐욕, 낙심, 분노, 나태, 헛된 영광을 좇는 마음, 교만 등등입니다. 이것들 죄의 권세! 죄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난 잘못된 행동을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죄는 그 이상입니다. 곧 인간 안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만드는 '악한 성향'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저절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인간 안의 악한 힘의 실체를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바 악은 행하는도다" (롬 7:19)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이 포도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내가 원치 않는 엉뚱한 힘이 역사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게 만듭니다. 이 힘이 뭐냐? 죄의 힘입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가장 악한 힘은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힘에 자꾸 끌려가면 그저 그렇게 평범한 삶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해 버리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살다가 주저앉게 만드는 가장 악한 힘이 나태함 혹은 게으름입니다. 잠언 21:25은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했습니다. 인간 영혼에 온갖 독초가 무성하게 하고, 결국 그 안에서는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 게으름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처럼 손발을 놀리기 싫어하고, 노력하지 않고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육체적 게으름입니다. 잠언 6:9~11은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은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마 25:26). 코로나가 데리고 온 악마가 이 육체적 게으름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손발을 놀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경건생활도 한없이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습성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영혼에 진드기가 끼고, 독초가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둘째, 정신적 게으름입니다. 정신적 게으름은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정신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심지어 바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절대로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정신이 안이하고 나태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발휘해야 할 때 분별하지 않습니다. 민감해야 할 때에 무딥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하던 패턴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전에는 맞았는데 세월이 가면 잘못되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나태함입니다. 정신적으로 게으르면 그냥 하던 것을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천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게으름을 방지하는 경건서적 하나를 썼는데 책 이름이 <하늘가는 보병>입니다. 이 책에서 번연이 정신적 게으름에 대해 몇 가지 말합니다. (1)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것" (2) "미루기를 좋아하는 것" (3) "중간에 조금만 작은 일이 생기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고 어떤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 (4) "어중간하게 일을 하는 것"

셋째, 영적 게으름입니다. 세 종류의 게으름 중에서 가장 분별하기 힘든 게으름입니다. 그는 육체도 부지런하고, 정신도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움직임에 방향성이 없습니다. 영적 게으름에는 방향성, 목표, 목적이 없는 부지런함입니다. 고전 9장을 보면, 신앙의 삶에서 상 받기를 원하며 달려가는 사람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서 나온 영적 방향성'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달리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상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고전 9:25~27은 방향성을 명료히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관련이 없을 때는 가고 싶지만 절제하는 사람, 그 거룩한 방향을 향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영적 게으름은 자기 성찰을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정신도 바쁘지만 하나님을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적 게으름으로 망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들릴라에게 속아 두 눈이 뽑히고, 연자방아를 돌리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집니다. 왜 삼손은 자기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을까? 이것이 영적 게으름이지요.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승승장구 하니까, '야! 나는 지금 잘되고 있는 거구나' 하고는 정작 자기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돌보는 일은 나태했던 것입니다. 이 영적 게으름이 무서운 것이, 삼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 같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는 어떠세요? 영적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 육체적으로 부지런하고, 정신적으로 근면해서 사회에서 성과를 얻었는데, 삼손처럼 바로 그것이 내게 착시현상을 주어서 내 영적상태도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내 영혼은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영혼은 삼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선뜻 동의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냐? 이 게으름/나태함은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자' '지금 이대로 이 자리에 있자' 할 때에 그는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것이 지금 필요해...' 하지만, 안식은 하고 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만, 게으름은 취하고 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야.'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야. 시간절약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여유시간 가져도 돼.' '코로나에 예배 나가는 거 위험해. 안전이 먼저지.' '치열하게 살 필요 없어. 좀 즐기기도 해야지.' 이런 마음, 여기서 나오는 행동 전부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결론: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단 하나입니다.

이 게으름을 물리치는 명약은 한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딤후 4:8). 자신을 훈련하고 연마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자기를 흔들어서 깨워 훈련의 자리에 밀어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해지는 훈련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가져다줍니다(딤후 4:9).

여러분! 이미 스며든 게으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행복을 앗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 밀어 넣어 연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눔

1. 게으름의 세 가지 종류는 무엇입니까?
2. 내 안에 스며든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
바로 지금 '힘써 도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